변화의 시대정신으로 글로벌 에너지 리더 양성 박차

유기풍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총장

용맹과 강함 그리고 액운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온다는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원자력산업계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산업화 촉진을 위해 원자력산업계를 중심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인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1972년 설립되어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원자력계의 든든한 맏형입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그동안 원자력 산업에 관한 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원자력 산업에 대한 국민홍보, 원자력산업 기술회의 및 세미나 개최, 원자력 관련 기구와의 국제협력, 원자력 산업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활동, 회원 업체에 대한 자문과 친목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KINGS의 부름을 받고 총장으로 부임한 지도 벌써 8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원자력산업계의 유일한 특수전문 고등교육기관으로서 KINGS의 역할 제고를 위해 원자력계 많은 기관 방문을 통해 학교 발전을 위한 고견을 청취하고 논의했습니다.

그러한 고견과 논의를 바탕으로 발전된 KINGS 2030을 그려보며 지속가능하고 에너지

산업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 및 R&D분야의 〈World-Best KINGS 2030〉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여 양질의 교육 및 R&D 분야 서비스제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원전수출과 관련하여, 정부와 원자력산업계가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폴란드와 체코의 주한대사를 직접 초청해 원전도입에 대비한 인력양성을 위해 각국에서 추천된 우수한 인재 5명씩에게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상호 적극 협조해 양국의 대학 및 기업들을 위한 단기 교육과정과 상호 정보교환을 위해 교류를 수시 개최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경을 초월하는 국가 간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든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일상화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더믹으로 대학은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비대면 강의문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초연결시대란 극심한 문화적 변혁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혁명의 물결에 맞춰, 우리 KINGS도 열린 세상과 함께 호흡하는 자세의 전환을 해나갈 것입니다. 원자력이든 신에너지든 고급인재 양성이란 측면에서 시대정신에 부응해 나갈 것입니다.

호랑이 새해, KINGS가 원자력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도울 수 있을 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원자력산업」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리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KAIF